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 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만났던 분들을 한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처음 열리는 행사인데도 상당히 규모가 있고 내용도 알차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발표하신 혁신사례 하나하나 모두 귀하고 값진 성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려고 왔는데 거꾸로 제가 더 힘을 얻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직도 '혁신' 하면 어렵게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은 한마디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연구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모방으로 시작해서 창조적 활동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박람회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학습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지역혁신 전략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추진 등에 대해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본래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혁신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중앙의 권력이 받쳐 주고 돈만 많이 투입하면 성공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역 스스로 혁신전략을 찾고 지식과 기술, 인재를 잘 결합해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고 혁신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지역별로 혁신발전 5개년 계획도 세워서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여러분의 혁신 노력을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8월 확정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혁신기반 구축사업 등에 앞으로 5년 간 모두 4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는 정책, 예산 할 것 없이 모두 '지방 우선'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방 중에서도 성공가능성이 높고 효율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지역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혁신의지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지방대학 출신을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 같은 원칙이 적극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울

러 지방분권화작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277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고,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권 확대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혁신은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이 힘을 합쳐 이렇게만 계속해 나간다면 지방은 그야말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참여정부는 그동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에 대한 일부 규제를 풀었고, 점차 수도권 규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계획을 세워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조그마한 수도권 규제개선도 온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을 것인데, 지방이 큰 틀에서 자제하고 용인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방은 지방대로 특색 있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을 믿고 그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이 협력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의 희망을 꺾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구조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도우며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시대,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 가야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서로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합시다. 끊임없이 혁신의 기운이 용솨음치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훌륭한 성공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만납시다.

다시 한번 지역혁신박람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